

Seating Layout of Crown Prince Hoejak Performance in the 19th Century Uigwe (a collection of royal protocols)

Kim, Jong Su*

This paper examines the seating layout of the crown prince and feast participants in the crown prince Hoejak feast(會酌) vis-a-vis the viewing of Jeongjae performance. Hoejak is a after-party humble feast where a deaconess offers a cup of wine to the principal guest(主賓, 王世子) with the attendance of the titled ladies(命婦) and officials of Dogam (an ad hoc office 都監).

In 1828 (King Sunjo's 28th year of reign), the crown prince was seated at the east wall inside the royal palace(殿內), facing the west direction. In 1829 (King Sunjo's 29th year of reign), the crown prince was seated in Dongbogye (the provisional east floor, 東插席), facing the west direction. In 1887 (King Gojong's 24th year of reign), the prince again faced the west direction, being seated at the east wall in the royal palace. The prince's facing the west direction was meant to avoid the south-facing seat of the majestic king's seat so that he might show his respect to the king.

In 1828, Jeongjae(呈才) performance was conducted on Bogye (the provisional floor), facing the north, but the prince's seat was prepared to face the west direction, inconveniencing him in watching the performance. The titled ladies's seat, facing the south direction in the royal palace, was the best location to view the performance. The titled ladies could be seated, facing the south, because

*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 hierarchical order should be strictly kept among those with a similar status, those with a very low status were allowed to mingle with those with a high status.

The west-facing seating of the crown prince was very inconvenient for him to view the Jeongjae performance, so in 1829, the crown prince's seating was prepared on Donbogye (the east floor) to face the west, while the Jeongjae performance was conducted on the central Bogye (provisional floor), facing the east. This layout was designed to avoid the king's south-facing seat, and to view the performance, by emptying the inner space of the royal palace and using the space including the outer area adjacent to the palace as the feast space, but this layout made the available seating space narrow.

Thus, in 1887 (King Gojong's 24th year of reign), the crown prince seating faced the west again, while the Jeongjae performance was conducted, facing the north, resuming a layout similar to that of 1828. In 1828, blinds were pulled down before Jeonsangak (the band 殿上樂) and the Jeongjae performance stage, leaving the prince and Myeongbu to watch the performance through the blinds, but in 1887, the blind was pulled down before the band, allowing a wide-open viewing of the performance from inside the palace, improving the layout from 1828. As in 1828, the titled ladies's seat, facing the south, was the best location to watch the performance.

In 1892, the inconvenient west-facing direction of the crown prince's seating in the crown prince Hoejak feast was drastically changed to face the south, allowing the prince to best watch the performance which was conducted facing the north. However, the titled ladies's seating faced the east from the west corner of the palace, inconveniencing her in watching the performance. In feasts with the mother queen, or the king and the queen being the principal guests, the crown prince's westward seating was mandatory according to the protocols, but in the crown prince Hoejak feast, without the presence of these figures, the

prince's seating facing the west was not necessarily adhered to in a shift of paradigm of thinking. This change was influenced presumably because, after Joseon made an accord with Japan in 1876, it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various western countries, exposing itself to new civilizations.

In four events of crown prince Hoejak feast, after Joseon declared itself as the Great Korean Empire in 1897, the seating layout remained the same as in 1892 except that titled ladies's seating changed from an eastward direction inside the palace to an eastward direction from Seobogye (the west floor 西補階) with blinds pulled down. Likewise, the crown prince, from a south-facing seat at the north wall inside the palace, could watch the Jeongjae performance with a wide open view, while the titled ladies, who was seated in the west floor, facing the east, could watch only the side of Jeongjae performers through the blinds. Deploying of the crown prince's seat and the titled ladies's seat in different spaces was intended to raise the prince's status symbolically.

The Hoejak feast layout of the feast participants and the Jeongjae performance was examined in connection with royal protocols, and it was gradually changed to allow the prince to better view the performance.

19세기 의궤를 통해 본 왕세자 會酌의 公演 배치

김종수*

〈차 례〉

1. 서론
2. 왕세자회작 개관
3. 公演 배치의 변천
4. 결론

1. 서론

19세기에 연향과 관련해서 의궤체제와 연향종류에 변화가 나타난다. 즉, 연향관련 의궤 체제는 1795년(정조 19) 혜정궁 환갑을 기념하여 사도세자(思悼世子, 追尊 莊祖)의 묘(墓)가 있는 화성에 행차하여, 내진찬(內進饌)과 양로연(養老宴)을 베푸는 일 등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圓幸乙卯整理儀軌)』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다.

그 변화는 첫째, 필사본으로 제작하던 이전과 달리 활자본으로 대량 찍었다.

둘째, 이전의 의궤와 달리 진찬도(進饌圖)·점재도(呈才圖)·복식도(服飾圖) 등 도식(圖式)을 실어서 당시 연향의 정경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셋째, 연향에 관해 총괄적인 것을 서술한 뒤, 이를 크게 일방(一房: 樂歌舞)·이방(二房: 饌膳, 排設)·삼방(三房: 儀式)의 업무로 나누고, 그 다음 별공작(別工作)·내자시(內資寺)·내설시(內贖寺)·예빈시(禮賓寺)·사육서(司畜署) 등 각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를 서술하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항목별로 서술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1795년 이전에는 찬품(饌品)에 대한 것은 이방 및 내자시·내설시·예빈시·사육서 항목에서 따로 따로 서술했다면, 1795년부터는 모두 찬품이라는 항목 아래 통합하여 서술했다.¹⁾

이런 변화 중 특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도식(圖式)이다. 반차도(班次圖)가 있어서 주빈(主賓)과 시연자(侍宴者)가 어느 위치에서 예(禮)를 행하고 공연을 보는지, 악공·여령(女伶)·부동(舞童)은 어느 위치에서 공연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차도에는 진좌위(進爵位)·왕세자배위(王世子拜位)·왕세자시연위(王世子侍宴位)·명부배위(命婦拜位)·명부배연위(命婦陪宴位)·거취차비(夾席差備) 등 구체적으로 명칭을 적어놓은 반면에 진연도(進宴圖) 또는 진찬도(進饌圖) 등에는 그림으로 그려놓아 생생하게 그 정경을 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세기 중반 궁중연향에 나타난 변화는 외연(外宴) 또는 내연(內宴)의 정일(正日) 연향 외에 추가로 밤에 야연(夜宴)을 베풀고, 그 다음날 회작(會酌)을 베풀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719년(숙종 45)에 숙종의 기로소 입소(耆老所入所)를 경축하여 9월 28일에 외진연(外進宴)을 올렸고,²⁾ 1744년(영조 20)에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경축하여, 10월 4일에 대왕대비(仁元王后)에게 내진연(內進宴)을 올리고, 10월 7일에 영조에게 외진연을 올렸으며,³⁾ 1827년(순조 27)에 원손(元孫) 탄생을 경축하여, 9월 10일에 왕과 왕비에게 내진작(內進爵)을 올리어,⁴⁾ 정인연향만 올렸을 뿐이다.

1) 김중수, 「규장각 소장 연향 관련 儀軌 고찰」, 『규장각 소장 문헌별 의례 해설집』(서운대 규장각, 2005), 8-9쪽.

2) 『己亥進宴儀軌』 卷1.1a. (규14358) 『己亥進宴儀軌』는 원본에 張數 표기가 없으나, 국립국악원에서 영인본으로 발행할 때 장수 표기를 첨가했으며, 필자는 권의상 이름 따랐다.

3) 『甲子進宴儀軌』 卷1.2a. (규14360) 『甲子進宴儀軌』는 장수(張數) 표기가 없으나, 국립국악원에서 영인본으로 발행할 때 장수 표기를 첨가했으며, 필자는 편의상 이름 따랐다.

4) 『慈慶殿進爵差備儀軌』 卷1a. (규14336).

그런데 1828년(순조 28)에는 순원왕후(純元王后) 40세를 경축하여, 2월 12일에 왕과 왕비에게 내진작을 올렸을 뿐 아니라, 그날 밤 야진별판과(夜進別盤果)를 올리고, 2월 13일에 왕세자가 회작(會酌)을 행했다.⁵⁾ 1829년에 순조 40세를 경축하여, 2월 9일에 왕에게 외진찬(外進饌)을 올리고 12일에 내진찬(內進饌)을 올렸을 뿐 아니라, 그날 밤 야진찬(夜進饌)을 올리고, 13일에 왕세자가 회작을 행했다.⁶⁾ 1848년(헌종 14)에는 순원왕후 60세를 경축하여, 3월 17일에 내진찬을 올렸을 뿐 아니라, 그날 밤 야진찬을 올리고 3월 19일에 대전회작(大殿會酌)과 야연(夜筵)을 행했다.⁷⁾ 이렇게 정인연향 외에 야연과 회작을 베푸는 것은 1828년 이후 대한제국시기에까지 계속 이어졌다.⁸⁾

왕실의 어른인 대왕대비나 왕과 왕비가 주빈(主賓)인 연향에서의 공연 배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왕실의 2인자인 왕세자가 중심이 되는 연향에서의 공연 배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고는 19세기 연향 관련 의궤에 실린 도식(圖式)을 바탕으로 왕세자회작에 나타난 공연 배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왕세자회작⁹⁾은 1828년(순조 28) 2월, 1829년(순조 29) 2월, 1887년(고종 24) 정월, 1892년(고종 29) 9월, 1901년(고종 38) 5월, 1901년(고종 38) 7월, 1902년(고종 39) 4월, 1902년 11월 등 8차례 행해졌다.¹⁰⁾ 이 시기를 아우르는 발로 편희상 '19세기'라는 말을 붙인 것이므로, 1901년과 1902년의 회작도 본고의 연구 범위에 포함시킨다.

5) 『戊子進爵儀軌』 卷首1a, (頁14364).

6) 『己丑進爵儀軌』 卷首1a, (頁14370) (서울:서운대 규장각, 1990).

7) 『戊申進爵儀軌』 卷首1a, (頁14372)

8) 『壬寅 11월』進宴儀軌』 卷首1a, (서울:서운대 규장각, 1990). "大殿外進宴正日 十一月初四日 異時中和殿設行, 內進宴正日 十一月初八日 異時 數明殿設行. 夜進宴 同日 亥時 觀明殿設行. 皇太子會酌 十一月初九日 異時 觀明殿設行." * 『壬寅 11월』進宴儀軌』는 고종 즉위 40년을 경축하여 1902년(고종 39) 11월에 행한 연향을 기록한 의궤이다.

9) 엄밀히 말하면, 1897년 이후는 황태자회작으로 불리웠다. 본고에서 '왕세자회작'이란 용어는 황태자회작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였다.

10) 1892년 9월은 즉위 30년과 고종의 보령 41세등, 1901년(고종 38) 5월은 헌종의 제비인 효정왕후(孝定王后)의 망파(喪父, 71세)은, 1901년(고종 38) 7월은 고종의 보령 50세등, 1902년(고종 39) 4월은 고종의 기로소입소(耆老所入所)등, 1902년 11월은 고종의 즉위 40년을 경축하여 연향을 베풀었다.

2. 왕세자회작 개관

1) 의례 구성

회작은 정일(正日)연향에 부수적으로 마련 조출한 연향으로서, 정일연향을 주관하여 올린 자가 주빈이 된다. 예를 들면, 1887년(고종 24)의 정해진찬(丁亥進饌)은 고종과 왕세자가 주관하여 80세를 맞이한 대왕대비(神貞王后, 1808-1890)¹¹⁾에게 올린 연향이므로, 정일연향 다음 날 대전회작을 행하고, 그 다음날 왕세자회작을 행했다.¹²⁾

의례는 어느 정도 고정성(定型性)이 있기 마련이나, 1897년(고종 34) 9월 17일에 고종이 황제의 지위에 올라 대한제국 시기를 열었으므로, 제후국으로 자처한 조선왕조 시기의 의례와는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1897년 이전의 왕세자회작 중 가장 늦은 시기인 1892년(고종 29) 9월의 왕세자회작의 의식절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892년(고종 29) 9월 26일 왕세자회작의 의식절차¹³⁾

절차	음악	무才
세자가 寶座에 오류 命節과 進饌所至上郎廳 再拜	海屋添籌之曲 ¹⁴⁾	壽筭長
마음 2인이 신장아강 부름 세자에게 揮巾 바침	祥雲曜日之曲(낙양춘)	
꽃 바침	帝壽昌之曲	萬壽舞
명부와 진찬소당상낭청에게 꽃 나눠줌	崇萬壽之曲(향양교주)	
명부와 진찬소당상낭청이 자리에 앉음		
세자에게 茶挀과 饌挀 바침	天保九如之曲	頌百福之舞

11) 신정왕후(神貞王后) : 풍양조의 세도의 기준을 마련한 조만영(趙萬永)의 딸로써 1819년(순조 19)에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의 빈(嬪)이 되어, 1827년(순조 27)에 헌종(憲宗, 재위 1834~1849)을 낳았다.

12) 『[丁亥]進饌儀軌』 卷首1a. (奎 14404).

13) 『[壬辰]進饌儀軌』 卷1.91a-93b 康寧殿聖日聖日 王世子會酌儀.

14) 상운요일자곡(祥雲曜日之曲)과 즉성일자곡(祝聖人之曲)은 낙양춘의 아명(雅名)이고, 낙양춘지곡(樂萬壽之曲)과 구오강령지곡(九五康寧之曲)은 향양교주의 아명이다. 아명만으로는 무슨 곡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의주(儀註)에 작은 글씨로 본명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우첨주지곡(海屋添籌之曲)·제수창지곡(帝壽昌之曲) 등 정재 반주음악에는 본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의 정재를 공연할 때 악자어 중간 중간에 바뀌므로 여러 개의 악목이 연주되어, 본명으로 한 곡을 제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글씨로 '原舞曲'이라고 적어놓았을 따름이다.

여집사가 세자에게 九과 殊數 바침	九五康寧之曲(향당교주)	
세자가 술을 마삼	八千春秋之曲	獻酒桃
세자에게 담 바침	獻天壽之曲(향당교주)	
명부의 致詞를 읽음 술을 대림 진찬소당상낭청의 致詞를 읽음 술을 내림		
명부와 진찬소당상낭청 제배	祝聖人之曲(낙양운)	
명부와 진찬소당상낭청이 자리에 있음		
명부와 진찬소당상낭청의 舞가 자리고 술 즐림	武寧之曲	獻酒舞
세자에게 차 바침.	萬斯年之曲	拋筵樂
사창 2인이 후광악장 부름		
찬안·시경·휘진 문림	萬歲穆見之曲	給酒樂
명부 이하 잔탁 즐림		
	演百福之曲(향당교주)	
명부와 진찬소당상낭청 제배	四方來賓之曲(낙양운)	
세자가 보좌에서 내려와 안으로 돌아감	大壽永昌之曲	奉養禮
명부 이하 나눔		

왕세자회작의 의식절차는 여집사가 왕세자에게 1작(辭)의 술을 올리고, 명부(命婦)와 진찬소(進饌所) 당상(堂上)·낭청(郎廳)이 致詞(致詞)를 아뢰는 것으로 구성되었다.¹⁵⁾ 이에 비해 1892년 외진찬에서는 왕세자와 문부백관이 왕에게 9작의 술을 왕에게 올렸고, 내진찬에서는 세자·세자빈·좌명부(左命婦)·우명부(右命婦)·왕자·중친·척신이 7작의 술을 왕과 왕비에게 올렸다.¹⁶⁾

따라서 회작의 특징은 작수(辭數)가 정일연향에 비해 적다는 것과 여집사가 왕세자에게 술을 올린다는 것이다. 연향참석자가 주변에게 술을 올린 외진찬과 내진찬은 연향 참석자가 주변에게 연향을 올린다는 성격이 강하지만, 여집사가 술을 올린 왕세자회작은 정일연향을 마친 뒤 왕세자와 명부 및 진찬소 당상·낭청이 뒷풀이하

15) 단, 1828년 왕세자회작에서는 공주와 명부만 致詞(致詞)를 올렸고, 1829년 왕세자회작에서는 당상·낭청 뿐 아니라 명부도 致詞를 올리는 절차가 있다. 이 두 연향을 제외한 나머지 왕세자회작에서는 명부와 당상·낭청이 致詞를 올렸다. <『戊子進饌雜軌』 권1, 25a-27a 慈慶殿翌日王世子會酌儀, 『己丑進饌雜軌』 권1, 42b-44b 慈慶殿翌日王世子會酌儀>

16) 김중수, 「외연(外宴)과 내연(內宴)의 의례구성과 특징 (1)·19세기~20세기 초 의례를 중심으로」 『韓國音樂史學報』 제29집(2002.12), 167, 176쪽.

는 의미를 띠고 있다.

2) 악기 편성

왕세자가 대리청정(代理總政) 중에 조참(朝參) 의식을 행할 때는 왕이 조참 의식을 행할 때에 비해 악기 편성 규모를 적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¹⁷⁾ 왕세자회작의 악기편성은 정일연향에 비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왕세자회작에 명부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내연과 공동점이 있으므로 내연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왕세자회작은 1828년 2월, 1829년 2월, 1887년 정월, 1892년 9월, 1901년 5월, 1901년 7월, 1902년 4월, 1902년 11월 등 8차례 행해졌는데, 이중 첫 번째인 1828년 2월에는 전상악(殿上樂)만 진설했고, 그 이후는 전상악과 내취(內吹)를 진설하였다. 내취는 선유락정재(船遊樂正才)를 공연할 때 연주하는 악대이다. 왕세자회작의 공동점은 현가(絃架)가 없다는 점이다.

한편 위의 8차례 중 1828년과 1829년의 내연은 왕세자회작과 마찬가지로 현가가 없지만, 그 이후는 모두 현가를 진설하여 왕세자회작과 달라진다.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2〉 1829년(순조 29) 2월 내전진과 왕세자회작의 악기편성¹⁸⁾

	내전진	회작
전상악	박1, 피리6, 대금4, 당적4, 풍소2, 탐비파4, 해금4, 방울4, 장고2, 생(笙)4, 기문고2, 가야금2, 아쟁2, 양금(洋琴)2, 당금(唐琴)2, 부구(浮鼓)1, 교방고2, 운라(雲羅)2, 가(箏)2, 호적(篳竹)2, 징(箏)1, 요(簫)1	同
내취	징(箏)1, 고(鼓)2, 호적6, 자바라(嗒吟羅)4, 나팔(喇叭)4	同

17) 김종수, 『세종대 조차악(朝參樂) 고찰』, 『문화유산』(서울: 은지학회, 2004.6.) 10집, 192~195쪽.

18) 『己丑進賢儀軌』 권3.5b-6a.

〈표 3〉 1887년(고종 24) 정월 내진찬과 왕세자회작의 악기 편성¹⁹⁾

	내진찬	왕세자회작
전상악	박1, 피리10, 대금10, 당적2, 등소2, 비파2, 해금 4, 방항 2, 장고3, 생1, 거문고2, 가야금2, 아쟁2, 양금1, 교방고2, 篳1	同
내취	장1, 호적4, 나각(螺角)2, 자바라2	同
현가	박1, 피리8, 대금7, 편종2, 편경2, 당적2, 등소2, 비파2, 해금2, 방항1, 장고2, 건고1, 삭고1, 응고1, 축1, 어1, 생1	x

〈표 4〉 1889년(고종 24) 9월 내진찬과 왕세자회작의 악기 편성²⁰⁾

	내진찬	왕세자회작
전상악	박1, 피리10, 대금10, 당적2, 등소2, 비파2, 해금4, 방항2, 장고 3, 생1, 거문고2, 가야금2, 아쟁2, 양금1, 교방고2, 篳	同
내취	장1, 나(螺)1, 호적4, 자바라2, 篳2, 나각2	同
현가	피리6, 대금4, 당적4, 등소2, 비파2, 해금4, 방항1, 편경2, 편종2, 응고1, 축1, 어1, 생1	x

〈표 5〉 1901년(광무 5) 7월 내진연과 황태자회작의 악기 편성²¹⁾

전상악	박1, 피리10, 대금10, 해금4, 장고2, 거문고2, 가야금2, 비파1, 득중 1, 득경1, 방항2, 아쟁1, 대정1, 원금1, 생1, 양금1, 당적2, 등소2, 교방고1, 갈고1	同
내취	장1, 篳1, 호적2, 자바라2, 篳2, 나각2, 나반2	同
현가	박1, 피리8, 대금7, 편종2, 편경2, 당적2, 등소2, 비파2, 해금2, 방항1, 장고2, 건고1, 삭고1, 응고1, 축1, 어1, 생1	x

즉, 1828년과 1829년에는 내연과 왕세자회작이 다같이 현가가 없으므로 악기편성이 완전히 똑같았다. 그러나 1887년 이후는 내연에 현가가 진설되어,²²⁾ 현가가 없는 왕세자회작과 달라지지만, 전상악과 내취의 악기편성에 있어서는 내연과 왕세자회작이 같았다.

참고로, 왕세자회작에서 공연된 정재의 인원은 내연에서와 똑같았다. 예를 들면,

19) 『丁亥遊樂儀軌』 권3, 20b-21a.; 25ab.

20) 『壬辰遊樂儀軌』 권3, 32b-33b; 36b-37a.

21) 『甲午遊樂儀軌』 권3, 34a-35a; 38ab.

22) 1848년(현종 14)에 이미 내연에 전상악과 내취 외에 현가를 진설하여 회작과 달라진다. 그러나 이때는 왕세자회작이 아닌 대전회작을 베풀었으므로, 본고에서 1848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1892년에 내진관에서 공연된 정재는 헌선도(獻仙桃)·제수창(帝壽昌)·수연장(壽延長)·향령무(響鈴舞)·몽금척(夢金尺)·하황은(荷皇恩)·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보상무(寶相舞)·취화무(催花舞)·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만수무(萬壽舞)·무고(舞鼓)·오양선(五羊仙)·경풍도(慶豐圖)·첩승무(疊勝舞)·헌천화(獻天花)·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포구락(拋毬樂)·선유락(船遊樂)·검기무(劍器舞) 등 20종이고, 왕세자화악에서 공연된 정재는 헌선도·수연장·연백복지무·만수무·포구락·선유락·검기무·춘앵전(春鶯囀) 등 8종인데, 이중 7종이 내진관에서 공연된 것이며, 정재의 구성원은 내진관에서와 같았다.²³⁾

3. 公演 배치의 변천

연향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음식상이 차려지고 음악과 춤이 공연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들에 이어 넓은 덧마루를 임시로 설치하였는데, 이를 보계(補階)라고 한다.²⁴⁾ 남녀유별이 분명한 조선시대의 특성상, 왕대비·왕비·공주·명부 등 여성 참석자들을 남자 악공들이 볼 수 없도록, 보계에 주렴(珠簾)이나 휘장을 드리웠다. 공연 배치의 변천을 살피기 위해 먼저 주렴이나 휘장으로 구분된 보계 유형과 구체적인 위치 용어를 살피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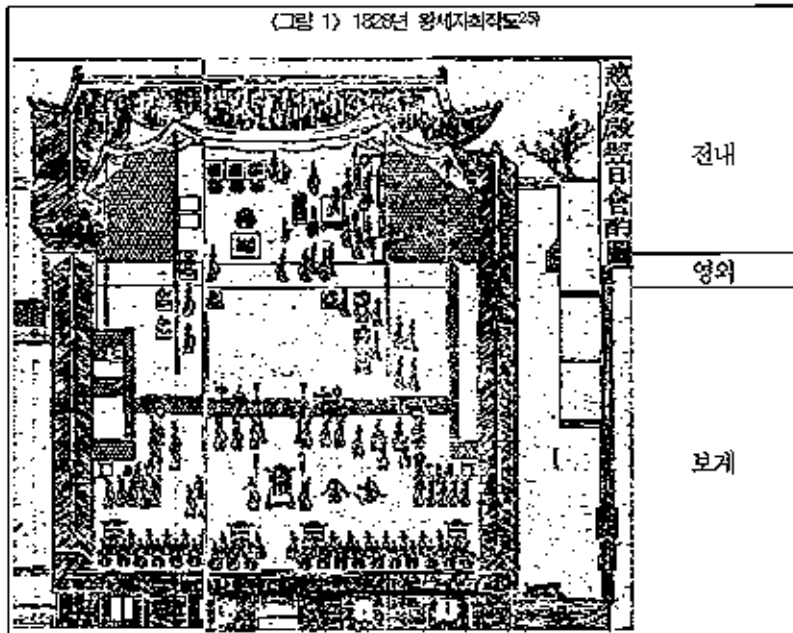
23) 『工部通撰儀軌』 권3, 33b-34b; 37a-b.

24) 사진철, 「조선시대 궁중 공연 공간의 양상과 극장사적 의의」 『서울학연구』 15집(서울: 서울학연구소, 2000), 1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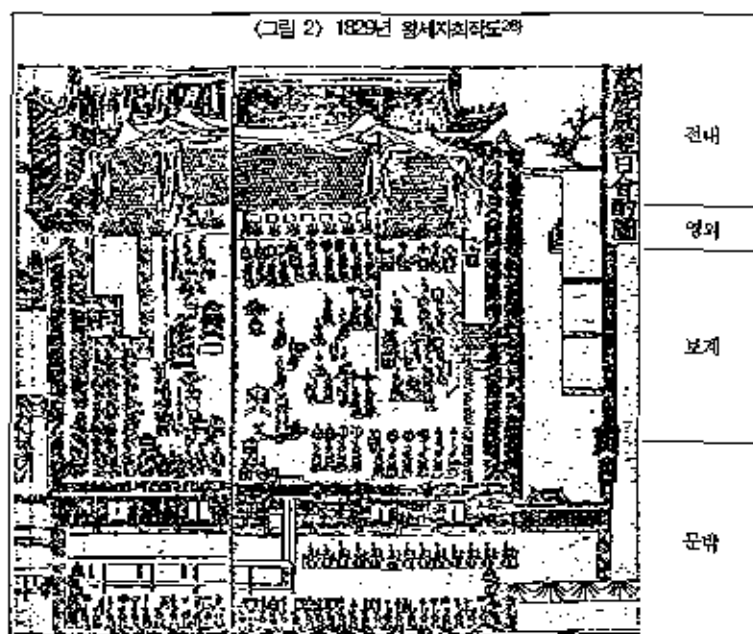
1) 여성이 참여하는 연향의 공간 유형

내전천(내전연, 내전작)이나 회작 등 여성이 참여하는 연향에서 공간은 주렴이나 휘장으로 보계가 어떻게 나뉘는가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림에서 전각 안은 전내(殿內), 이와 바로 연결되는 외부 공간은 영외(楹外), 영외에서 전정(殿庭)에까지 이르는 넓은 밋마루는 보계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보계 가운데를 주렴이 가로로 길게 드리워 공간이 둘로 나뉜 것을 이분형(二分形) A라 부르고, 〈그림 2〉에서 보듯이 보계 서쪽 모서리에 주렴이 세로로 길게 드리우고 가로로 짧게 드리워 공간이 둘로 나뉜 것을 이분형 B라 부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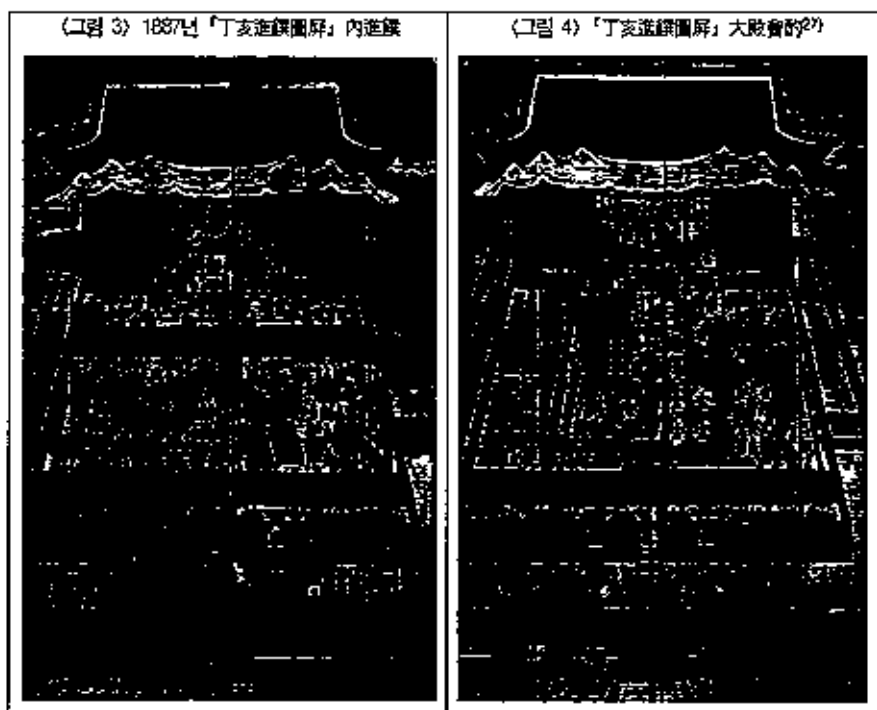


25) 『[戊子]通爵儀軌』 卷首 11b-12a.



〈그림 3〉에서 보듯이 보계의 북쪽과 남쪽에 주렴이 가로로 길게 드리워 공간이 셋으로 나뉜 것을 삼분형(三分形) A라 부르고 〈그림 4〉에서 보듯이 보계 남쪽과 서쪽에 각각 가로와 세로로 주렴이 길게 드리워 공간이 셋으로 나뉜 것은 삼분형 B라 부르기로 한다. 삼분형 A는 정일연향의 내연에만 보이고 왕세자회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다.

26) 『山田遊談儀軌』 卷首 15b-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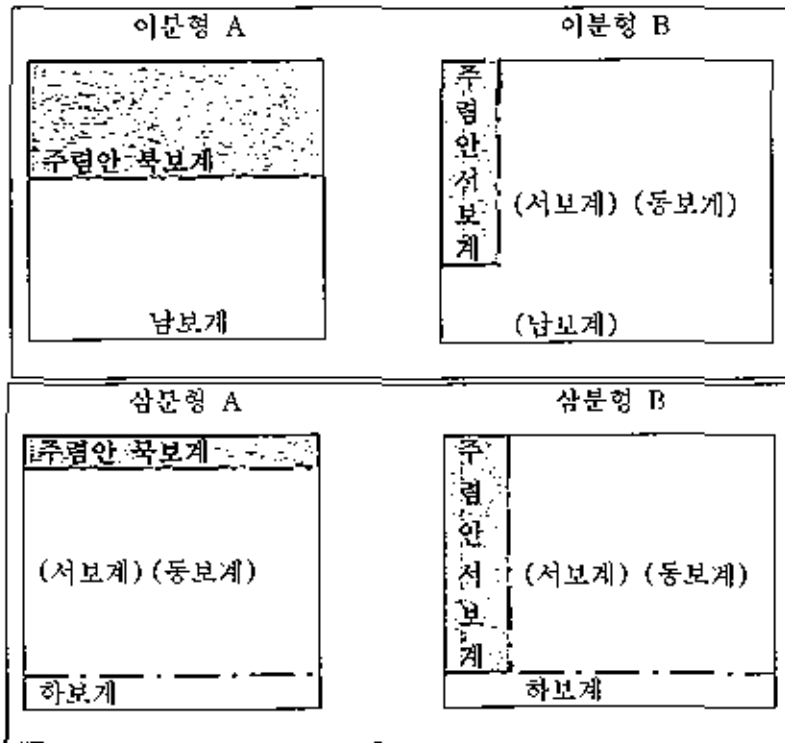
의주(儀註)에 근거하여,²⁸⁾ 보계들 위치에 따라 구체적으로 동보계(東補階)·서보계(西補階)·남보계 및 주렴안 북보계, 주렴안 서보계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삼분형에서는 남쪽에 있는 보계가 주렴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재를 추는 보계보다 약간 낮게 만들어졌으므로 그 특징을 살려 하보계(下補階)로 부르기로 한다. 이를 시각적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_____ 는 주렴을 뜻한다.

27) 『조선시대 전연 정간 신하명종』(서울:국립국악원, 2000), 81쪽, 83쪽.

28) 『[戊子]遊儀儀軌』 권1, 25a 「慈慶殿翌日王世子會酌儀…女執事設公主命婦酒卓於殿外西階上。又設命婦頭花卓於簾內東階上, 近南。設公主命婦妝符案於殿外近西。掌樂院張細吹樂隊呈才舞於殿外南階上東西。」

『[己丑]遊儀儀軌』 권1, 42b-43a 「慈慶殿翌日王世子會酌儀…其日內侍設于世子座於簾外東階上近東西向。…女官設命婦浴衣位於殿之殿外簾內近北。拜位於西階上簾內東向。…女執事設命婦酒卓於簾外西階上近北…掌樂院備樂隊呈才舞於西階上。」

『[丁亥]遊儀儀軌』 48ab 「高慶殿再翌日王世子會酌儀…女執事設于世子酒亭茶亭進花象揮巾卓於殿外東階上, 女官設命婦酒卓於簾內西階上…掌樂院備樂隊呈才舞於簾外東西階上。」



2) 왕세자회작의 공연 배치

공연배치란 감상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연향의 주변인 왕세자가 앉는 위치를 소개목으로 삼았다. 연향은 예와 악이 행해지는 공간으로서, 음식상을 받는 자리가 정재(呈才)를 관람하는 자리가 된다. 왕세자의 경우는 앉은 자리가 바로 절을 받고 치사문(致詞文)을 듣고 음식을 받는 곳이지만, 명부와 당상·낭청의 경우는 배위(拜位)와 진치사위(進致詞位) 및 배연위(陪宴位)가 각각 다르다.

(1) 1828년 왕세자 殿內 西向

1828년 왕세자회작은 창경궁의 자경전(慈慶殿)에서 행해졌다. 자경전은 동서남세 방향으로 행각(行閣)이 틀어 있는데, 동·남·서·의 행각의 창벽(窓壁)에까지 잇대어

보계를 만들었다.²⁹⁾ 보계 가운데를 길게 가로 질러 주립이 드리운 이분형 A이다.

의주 및 반차도(班次圖)를 참조하여 왕세자회각의 공연 배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 전내(殿內) : 왕세자좌(王世子座)가 동벽(東壁)에 서향하여 있고, 공주 배연위(陪宴位)가 왕세자와 앞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있고, 명부 배연위가 왕세자와 앞 북쪽 가까이 남향하여 있다.

공주 배위(拜位)가 전내 서쪽의 남쪽 가까이 동향하여 있고, 명부 배위가 공주 배위의 왼쪽에 동향하여 있다.

- 영외(楹外) : 공주와 명부의 치사안(致詞案)이 있다.
- 주립 안 북보계 : 왕세자 주정(酒亭)과 다정(茶亭)이 동쪽에 있고, 공주와 명부의 주탁(酒卓)이 서쪽에 있다.
- 남보계 : 무동(舞童)이 북향하여 춤을 추고, 전상악 악공이 그 남쪽에서 북향하여 연주하고 있다.

〈그림 1-1〉 그림 1의 반차도

전내(殿內) 왕세자회각 공주배연위	왕세자회 공주배연위	왕세자회	殿內
공주致詞案 명부치사안			楹外
공주酒卓 명부酒卓	왕세자酒亭 왕세자茶亭		주립안 北補階
	무동 殿上樂		南補階

29) 『戊子遠東儀軌』 권1 筵設 5a [戊子 正月 十五日… 朴宗薰曰 “… 東西南北皆令連接於行闈窓壁 則此昨年當稍成圖.”]

공주와 명부는 전내 서쪽에서 동향하여 왕세자에게 재배(再拜)한 뒤, 공주는 전내 남쪽에서 북향하여 앉고, 명부는 북쪽에서 남향하여 앉아 있는데, 음악과 정제는 주립 밖의 남보계에서 북향하여 공연되었으므로, 공주는 이에 정제를 관람할 수 없고, 명부는 주립을 통하여 정면으로 정제를 관람할 수 있다. 왕세자는 동벽에서 서향하여 앉아 있으므로 정제관람이 여의치 않다. 전내 북쪽에서 남향하고 있는 명부가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앉아 있는 셈이다.

왕세자가 정제 관람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동벽에서 서향하여 앉은 이유는 지극히 높은 임금이 앉는 자리인 북쪽을 피한 것이다. 이는 1443년(세종 25) 4월에 세종이 병이 심하므로 세자에게 정사를 맡길 뜻을 비치며, “세자로 하여금 승화당(承華堂)에서 남면(南面)하여 조회를 받도록 할 것이니, 1품이하는 뜰 아래에서 배례(拜禮)하고 아울러 신(臣)이라 일컫도록 하라.”고 하니, 영의정 황희와 내간 등이 ‘세자에게 신이라 칭하는 것은 지존(至尊)께 혐의스러울 뿐 아니라, 승화당은 지존께서 임어하시는 처소이므로 불가하고, 세자가 남면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아뢰어,³⁰⁾ 세자가 서향하여 조참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춘문(建春門) 안에 서향하여 전각을 새로 지은 역사적 사실에서 확인된다.³¹⁾

(사료 1) 1443년(세종 25) 5월 2일,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교시(敎旨)를 받들고 삼가 옛 제도를 상고하니, 태자가 동궁에 있을 때 서면(西面)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세자가 동궁 정문(正門)에서 남면(南面)하여 앉는 것은 옛 제도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건춘문(建春門) 안에다 별도로 집을 지어서 서향하여 앉게 하고, 종실(宗室)과 문무(文武) 군신(群臣) 1품 이하는 뜰 아래에서 재배(再拜)하되, 세자는 답배하지 않으며, 오직 종실(宗室) 백숙과 사부(師傅)는 먼저 당(堂)에 올라가서 재배하되, 세자도 답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마쳤다.

30) 『世宗實錄』 권100, 세종 25년 4월 17일(壬寅), 4월 20일(乙巳).

31) 『世宗實錄』 권100, 세종 25년 5월 2일(丙辰) 「議政府啓, “今承敎旨, 謹按古制, 太子在東宮西面, 爲避尊位. …今世子於東宮正門, 南面而坐, 則有違古制. 乞於建春門內, 別建堂宇, 西向而坐, 宗室及文武群臣一品以下, 再拜庭下, 世子不答, 惟宗室伯叔及師傅先升堂再拜, 世子答拜, …” 從之。」

그런데 어떻게 명부의 자리를 전내 북쪽에서 남향으로 마련한 것일까? 예(禮)에서 신분이 낮은 자는 높은 자와 맞먹는 것을 혐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이 환을 쓸 때는 《추우(騶虞)》를 연주하고 제후(諸侯)가 환을 쓸 때는 《이수(緝首)》를 연주하여, 제후가 감히 《추우》를 쓸 수 없으나, 신분이 낮은 대부(大夫)는 《우우》를 써도 괜찮았으며,³²⁾ 관작(官爵)이 매우 낮은 사(士)의 재관(齊冠)을 제후와 같게 하는 것을 혐의하지 않고, 재거(齊車)를 대부와 같게 하는 것을 혐의하지 않았던 것에서 확인된다.³³⁾

(2) 1829년 왕세자 東補陞 西向

1829년의 왕세자회작 또한 1828년처럼 창경궁 자경전에서 행해졌다. 1828년 왕세자회작에서는 주렴이 보계 가운데를 가로질러 드리웠지만, 1829년 회작은 보계 서쪽 모서리에 주렴이 세로로 길게 드리우고 가로로 짧게 드리워 공간이 둘로 나뉘어 이분형 B이다. <그림 2> 참조

- 전내 : 아무 것도 신설하지 않았다.
- 영의 : 명부 배연위가 남향하여 있다.
- (동서남) 보계 : 왕세자좌가 동보계에 서향하여 있다.

여령(女伶)이 보계 가운데에서 동향하여 정채를 공연하고³⁴⁾ 주렴안 서보계 아래와 남보계에 전상악 악공이 나자형으로 배치되어 각각 동향하거나 북향하여 연주하고 있다. 동향한 전상악공 앞에서 내취수(內吹手)가 동향하여 연주하고 있다.

왕세자의 주경과 다정이 동보계 북쪽 가까이에 있고, 명부의 주탁(酒卓)이 서보계 북쪽 가까이에 있고, 진찬소 당상·낭청의 주탁이 동보계의 남쪽 가까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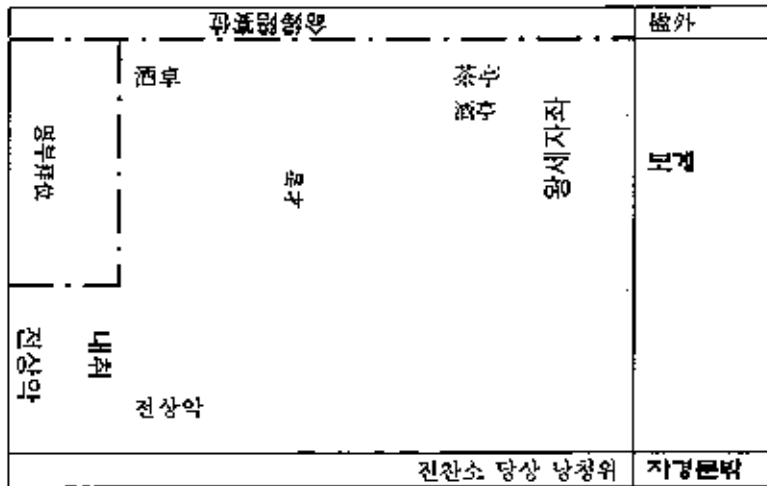
32) 『周禮』春官/鐘師「凡射王亦騶虞，諸侯亦緝首，卿大夫亦采蘋，士亦采芣。」
 『儀禮』鄉射禮「大夫設欠坐，坐說之，設騶虞若采蘋，皆五終。」
 『樂書』卷59「辨火大敬采蘋可也。王設騶虞，而大夫用之可乎？曰，大夫於天子為尤卑，…則大夫射兼歌騶虞，皆卑者不嫌抗尊之意也。」

33) 『樂書』卷51「士則事人，爵之尤卑者也。卑者不嫌於抗尊。故先王制禮多推而進之，是以齊冠不嫌於同諸侯，齊車不嫌於同大夫。」

34) 그림상으로는 보계 가운데이나 외부에서는 '서보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왕세자의 위치에 비해서 서쪽에 있다는 뜻이다.

- 주렴안 서보계 : 명부 배치가 동향하여 있다.³⁵⁾
- 자경문 밖 : 진찬소·당상·남청의 자리가 북향하여 있다.

(그림 2-4) 그림 2의 배치도



왕세자가 동보계에서 서향하여 앉아 있는데, 정재가 보계 가운데에서 동향하여 공연되었으므로, 정재를 정면에서 봐 드린 시야로 잘 관찰할 수 있다. 악공들이 명부를 볼 수 없도록 영외(楹外) 앞에 주렴을 드리웠으므로, 영외에 남향하여 앉은 명부는 주렴을 통하여 정재의 측면을 관찰하였다. 명부는 1828년에 비해,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한다는 점에서는 나아졌지만 정재의 측면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편해졌다. 자경문 밖에 앉아 있는 진찬소·당상·남청은 정재 관찰을 전혀 할 수 없다.

(3) 1887년 왕세자 殿內 西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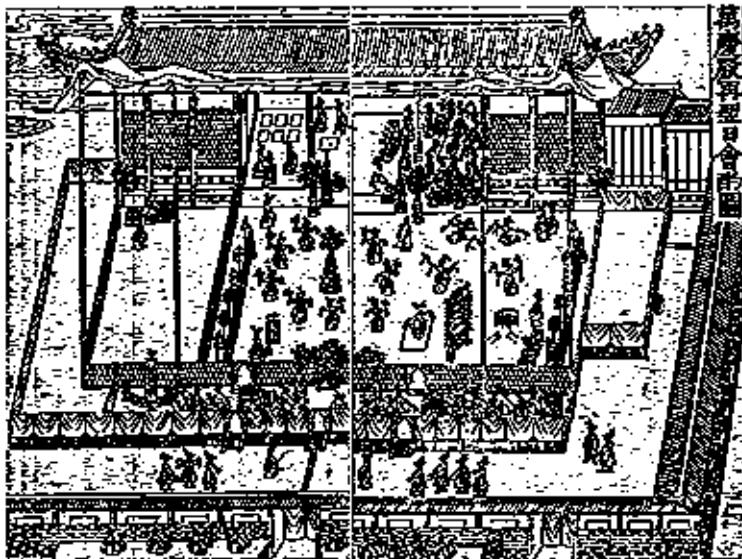
1887년 왕세자회작은 경복궁(景福宮)의 만경전(萬慶殿)에서 행해졌다. 악공들이

35) 『己丑進儀儀軌』 권1, 43a 「慈慶殿聖日王世子會酌儀, …酒卓及茶卓於東階上近北, 進花掌揮巾卓次之, 女官設命婦陪宴位於殿之楹外簾內近北, 拜位於西階上簾內東向…女執事設命婦酒卓於楹外西階上近北, 額花卓次之…掌樂院備, 樂陳呈舞才於西階上.

있는 하보계 앞에 주렴이 드리워있고, 주렴안 서보계가 있는 삼분형 B이다.

- 전내 : 1828년처럼 다시 왕세자좌가 전내의 동벽에서 서향하여 있다. 명부 배위(拜位)가 전내 중앙에 동향하여 있고, 명부 배연위가 전내 북쪽 가까이에 남향하여 있다.
- 영외 : 왕세자의 주정(酒亭)과 다정(茶亭)이 있다.
- (동서)보계 : 가운데에서 여형이 북향하여 정계를 공연하고 있다. 동보계의 남쪽 가까이에 진찬소 당상·낭청의 주탁(酒卓)과 치사안(致詞案)이 있다.
- 주렴안 서보계 : 명부의 주탁과 치사안이 있다.
- 하보계 : 하보계의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주렴과 휘장이 드리워 있으며, 전상악공이 북향하여 연주하고 있다.
- 하보계 남쪽 뜰 : 내취(內吹)가 있다.
- 대유문(大右門) 밖 : 진찬소당상낭청의 배위(拜位)가 대유문 밖 보계의 서쪽 가까이에 동향하여 있고, 배연위(陪宴位)가 대유문 밖 남쪽 가까이에 북향하여 있다.³⁰⁾

〈그림 5〉 1837년 왕세자회각도³⁰⁾



(4) 1892년 이후 왕세자 殿內 南向

① 1892년 왕세자회작

1892년 왕세자회작은 경복궁 강녕전(康寧殿)에서 행해졌다. 악공들이 있는 하보계 앞에 주렴이 드리우고, 주렴안 서보계가 있는 삼분형 B이다. 앞 항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분형 B는 주렴이 악공들 앞에 드리워있어 확트인 시야로 정체를 관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어떤 유형보다도 진보된 형태였으므로, 1887년 이후 왕세자회작의 보계는 모두 삼분형 B로 확립되었다.

- 전내 : 왕세자좌가 전내 북벽에서 남향하여 앉서, 명부 배연위가 전내 서쪽 가까이에 동향하여 있다.³⁸⁾
- 영외 : 왕세자의 주정과 다정이 있다.
- (동서)보계 : 가운데에서 여령이 북향하여 정체를 공연하고 있다. 동보계의 남쪽 가까이에 진찬소 당상·낭청의 주탁과 차사안이 있다.
- 주렴안 서보계 : 북쪽 가까이에 명부의 주탁과 차사안이 있다. 남쪽 가까이에 명부 배위가 북향하여 있다.
- 하보계 : 하보계의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주렴과 휘장이 드리워 있으며, 진상악공이 북향하여 연주하고 있다.
- 하보계 남쪽 뜰 : 내취(內吹)가 있다. 진찬소 당상·낭청의 배위가 향오문(嚮五門) 안의 보계에 북향하여 있고,³⁹⁾ 당상·낭청 배연위가 북향하여 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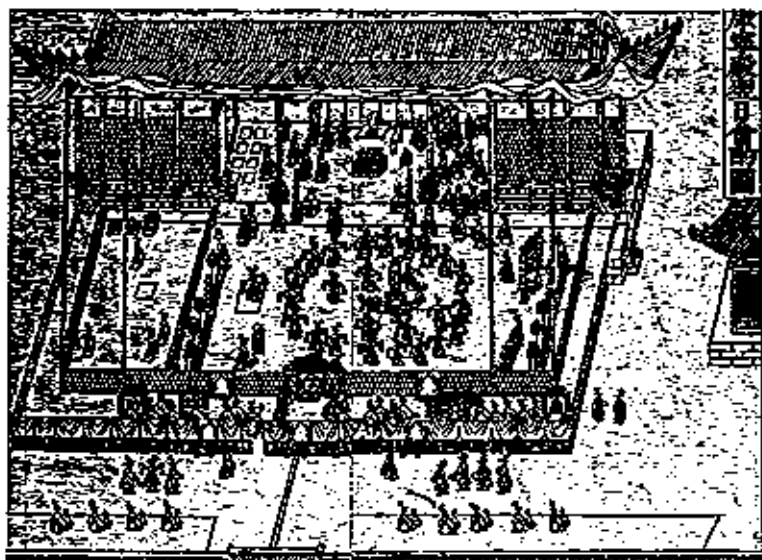
익일회작도와 만차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壬辰進儀儀軌』 권1, 91a 康寧殿翌日王世子會의儀에는 '又設命婦陪宴位於殿內西階上近西東向'으로 되어 있지만, 康寧殿翌日會의班次圖 및 康寧殿翌日會의圖에는 殿內的 서쪽 가까이에 동향하여 있다. 일단, 정황상 익일회작만차도와 익일회작도가 옳다고 판단되어 이를 채택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의주의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고 옳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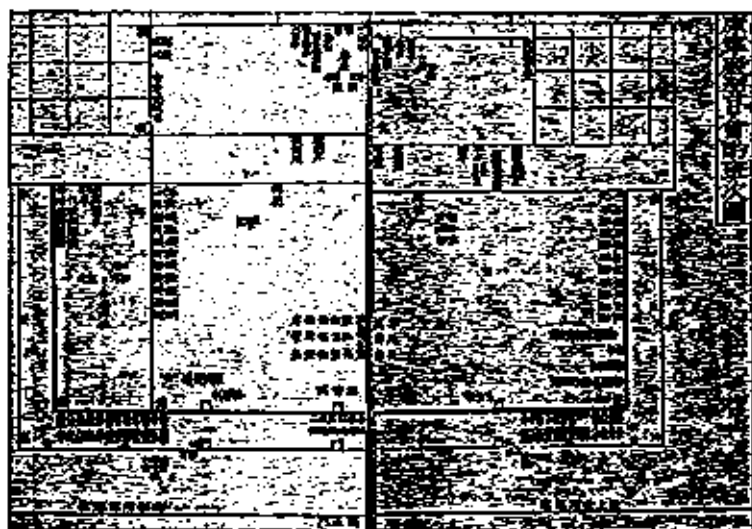
39) 『[壬辰]進儀儀軌』 권1, 91a 「康寧殿翌日王世子會의儀...女執事設進儀所至上御廳拜位 於獨五門內階上分東西 近南北向」.

40) 『[壬辰]進儀儀軌』 권1, 91a 康寧殿翌日王世子會의儀에는 '又設陪宴位於獨五門內近東西向'으로 되어 있지만, 康寧殿翌日會의班次圖 및 康寧殿翌日會의圖에는 향오문 안에서 북향하여 있다. 정황상 익일회작만차도와 익일회작도가 옳다고 판단되어 이를 채택했다.

〈그림 6〉 1892년 왕세자율령(단아)



〈그림 6-1〉 1892년 왕세자율령 배치도⁴¹⁾



41) 『壬辰通譯儀軌』 卷首 18b-19a.

42) 『壬辰通譯儀軌』 卷首 11b-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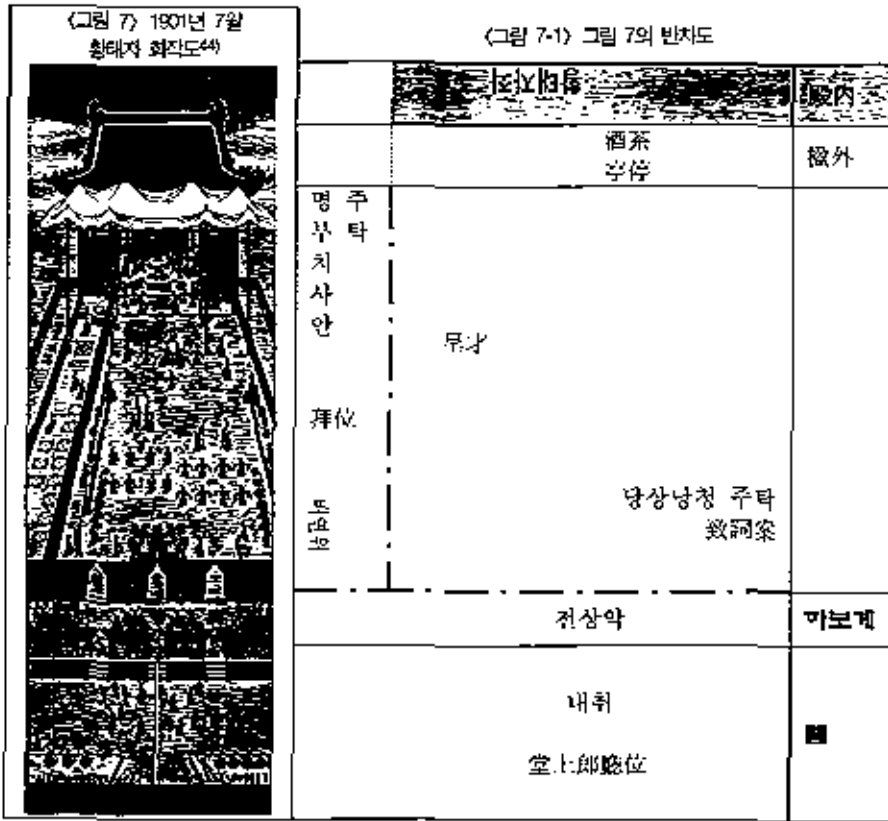
1887년과 달리, 왕세자가 전내 북벽에서 남향하여 앉아 있으므로 좌향하여 공연 되는 정제를 정면으로 잘 볼 수 있다. 그 대신 명부는 전내 서쪽에서 동향하여 앉아 있으므로, 측면에서 보게 되어 다소 불편해졌다. 진찬소 당상·낭청의 자리가 내위와 같은 공간인 향오문 안쪽에 마련됨으로써, 경재 관람은 좀 어렵지만 문 안에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배려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② 1901년 5월과 7월, 1902년 4월과 11월 황태자회작

1901년 5월의 왕세자회작은 경운궁(慶運宮: 현재의 德壽宮)의 慶運堂에서 행해졌으며, 보계 유형은 삼분형 B이다. 황제국을 표방한 대한제국시기이므로 왕세자는 황태자로 불리우고, 황태자회작의 의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게 되었지만, 본고의 주제가 아니므로 관심 밖으로 돌리겠다.

1901년 5월의 황태자회작의 공연배치는 명부배연위를 제외하고는 1892년의 경우와 같다. 즉, 1892년에는 명부배연위가 전내에 있었는데, 1901년 5월에는 황태자와 다른 공간인 주렴안 서보계에 있게 되었다. 왕이나 왕비가 주빈인 연향에서 명부배연위가 전내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비추어, 황태자회작에서 명부배연위를 주렴안 서보계에 마련한 이유는 황태자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종래 왕에게는 사배(四拜)하고 왕세자에게 재배(再拜)했었는데, 황제국을 표방한 후로는 황제와 마찬가지로 황태자에게 사배한 것에서도 확인된다.⁴³⁾ 이후 1901년 7월, 1902년 4월과 11월 황태자회작의 공연배치도 이와 똑같다. 1901년 7월의 황태자회작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3) 『(玉眞)通儀儀軌』 권1, 92a 「康寧殿翌日王世子會酌儀…女執事俯伏學處奏樂萬壽之曲【洛陽春】. 司贊曰再拜, 典贊唱鞠躬再拜興平身, 命婦及進儀所至上郎應鞠躬再拜興平身, 禁止」
 『(辛丑)通儀儀軌』 권1, 39b 「慶運堂再翌日皇太子會酌儀…女執事俯伏學處奏樂萬壽之曲【洛陽春】. 司贊曰四拜, 典贊唱鞠躬四拜興平身, 命婦及進儀所至上郎應鞠躬四拜興平身, 禁止」



4. 결론

외연(外宴) 또는 내연(內宴)의 정일(正日) 연향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회작(會酌)은 1828년부터 행해졌다. 본고는 왕세자회작에서 주빈인 왕세자 및 배연자(陪宴者)인 명부와 당상·당청의 위치와 정재공연 관람의 관계에 대해서 살핀 것이다. 그 변천을 표로 정리한 다음 그 의미를 의례적인 측면과 공연 관람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44) 『조선시대 권연 권찬 권하행동』 90쪽.

〈표 6〉 왕세자좌좌의 친식지와 정재 위치

	정재	왕세자좌	명부 비연위	당상·남청 비연위
1828년	남보계 북향	전내 서향	전내 남향	x
1829년	중앙 보계 동향	동보계 서향	영외 남향	자경문 밖
1887년	중앙 보계 북향	전내 서향	전내 남향	대유문 밖
1892년	중앙 보계 북향	전내 남향	전내 동향	하보계 남쪽 뜰
1901년 1902년	중앙 보계 북향	전내 남향	주립안 서보계 동향	하보계 남쪽 뜰

1828년(순조 28)에는 왕세자가 전내(殿內) 동벽에서 서향하여 앉고, 1829년(순조 29)에는 동보계에서 서향하여 앉았으며, 1887년(고종 24)에는 다시 전내 동벽에서 서향하여 앉았다. 이렇게 서향하여 앉은 것은 지존한 임금에 앉은 전내의 남향 좌석을 피하여, 임금에 대한 공경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1828년에 정재는 보계(補階)에서 북향하여 공연되었는데, 왕세자 좌석은 전내에 서향으로 마련되어 정재를 관람하기에는 불편하므로,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토알석이 아니다. 오히려 전내 남향으로 마련된 명부 좌석이 정재 관람하기에는 가장 좋은 좌석이다. 명부가 남향하여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신분이 비슷한 자끼리는 서연을 엄격히 지켜야하지만, 신분이 현격히 낮은 자는 높은 자와 맞먹는 것을 혐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내 서향의 왕세자좌는 무향하여 공연되는 정재를 관람하기에 아주 불편한 위치이므로, 1829년에 왕세자좌는 동보계(東補階)에서 서향으로 마련하고, 정재는 중앙 보계에서 동향하여 공연되도록 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공경을 지극히 하면서 정재를 잘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당시 연향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의 정재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⁴⁵⁾ 미루어볼 때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배치는 임금의 남면 좌석을 피한다는 명분과 정재 관람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내 공간을 비우고 영외(廳外)부터 연향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장소가 비좁은 단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1887년(고종 24)에 왕세자좌는 다시 전내 서향으로 마련되고 정재는 북

45) 김중수, 『叢書閣 所藏 朝鮮時代 宮中 宴享樂 文獻 - 純祖代(1800-1834) 機關圖 중심으로 -, 『叢書閣』 장간호 (성남, 한국경신문화연구원, 1999), 107, 116쪽.

향으로 공연되어, 1828년과 비슷해졌다. 그러나 1828년에는 전상악과 정제 앞에 주렴이 드리워있어⁴⁶⁾ 전내에서 왕세자와 명부가 주렴을 통해 정제를 관람해야했지만, 1887년에는 전상악 앞에 주렴이 드리워있어, 전내에서 확트인 시야로 정제를 관람할 수 있게 된 점에서⁴⁷⁾ 1828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1828년과 마찬가지로 전내 남향으로 마련된 명부 자리가 정제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이다.

1892년에는 왕세자회작에서 정제 관람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토록 지켜왔던 왕세자와 서향 배치가 전내 남향으로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북향으로 공연되는 정제를 왕세자가 가장 잘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신 명부는 전내 서쪽에서 동향하여 앉아 있으므로, 측면에서 보게 되어 다소 불편해졌다. 대왕대비나 왕·왕비가 주빈인 연향에서 왕세자의 서향 좌석은 당연히 지켜야할 범도이지만, 대왕대비나 왕·왕비가 참석하지 않는 왕세자회작에서는 서향을 굽이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여긴듯하다.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연향에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정제 관람의 불편 요소를 없앤다는 필요성에서 발단된 것이겠지만, 종래 지켜오던 왕세자 서향 좌석을 과감히 남향으로 바꾼 데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876년 일본과의 근대적 조약을 맺은 이후 미국·영국·독일·러시아·이태리·프랑스 등 서양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음에 따라 새로운 문물을 접촉하게 되었고,⁴⁸⁾ 이는 왕세자가 주빈인 연향에서는 왕세자가 남향하여 앉아도 지존의 왕을 공경하는 의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을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벼룬 4차례의 황태자회작의 배치는 명부의 배연위(陪宴位)가 전내 동향에서 주렴안 서보게 동향으로 바뀐 점을 제외하고는 1892년과 같다. 즉, 황태자는 전내 북벽의 남향 좌석에서 확트인 시야로 북향하여 공연되는

46) 주렴은 정제 앞에 드리우면, 전상악은 정제 뒤에서 연주하므로 전로 전상악과 정제 앞에 주렴이 드리운 것이 된다.

47) 이는 왕세자회작의 경우이다. 의견은 발한 것도 없고, 명부가 참여한 1848년 대전회작과 1828년 내전전에서 이미 왕 또는 왕비가 좌트인 시야로 정제를 관람하였다(『조선시대 전연 전산 전하명풍』 49쪽, 28쪽).

48) 이정희, 『개항기 근대식 궁정연회의 성립과 공연문화사적 의미』, (2010년 2월, 서울대 향농과정음악학과 한국음악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6-26, 44, 45쪽.

정제를 정면으로 관람하고, 명부는 주렴안 시보계에서 주렴을 통하여 정제의 측면을 관람하였다. 황태자좌와 명부 배연위를 서로 다른 공간에 배치한 것은 황태자들 높이는 상징적인 조치이다.

한편 왕세자회좌에서 도감의 당상·낭청의 배연위는, 1829년과 1887년에는 문 밖에 배치되었지만, 1892년 이후는 하보계와 문 사이의 뜰, 즉 문 안쪽에 설치되어 당상·낭청이 이전에 비해 배려된 감이 있다. 그런데 1848년 대전회좌에서 이미 당상·낭청이 문 안쪽에 배치되었다가 1887년 회좌에서 또 다시 문 밖에 배치된 것을 보면, 이는 장소의 광협(廣狹)과도 관계된 것 같다. 참고로 회좌 장소는 1829년은 창경궁 자경전, 1848년은 창경궁 통명전, 1887년은 경복궁 만경전, 1892년은 경복궁 강녕전, 1901년 5월은 경운궁 경운당이였다.

이상, 궁중연향은 단순히 술과 음식을 들며 악가무(樂歌舞)를 관람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상사회 구현을 위한 예(禮)와 악(樂)이 결합되어 표출된 행사이므로, 연향참석자와 정제공연의 위치가 관람 위주로만 정해질 수 없었던 문화적 맥락이 있었으며, 예를 지키면서 정제관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빈과 연향참석자의 자리, 정제 공연, 주렴의 위치 등이 변해온 과정을 고찰해보았다.